

#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노인의 가족관계가 시설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윤정<sup>1</sup>, 이상진<sup>2\*</sup>

<sup>1</sup>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sup>2</sup>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 The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 on Facility Adaptation of Long-Term Care Facility Residents

Yun-Jeong Kim<sup>1</sup>, Sang-Jin Lee<sup>2\*</sup>

<sup>1</sup>Department of Health, Counselling and Welfare, Hanseo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the Elderly Welfare, Han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노인의 가족관계가 시설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장기요양기관을 평가등급과 지역에 따른 할당표본을 통한 표집틀을 구성하여, 2018년 1월과 2월에 한 기관 당 입소노인 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81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된 연구결과는 첫째, 노인의 시설적응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집단행동부적응'과 '이동쇼크'와 같이 부적응차원은 2점대로 낮고, '새로운 거주지 인정'과 '친구 만들기'와 같은 적응차원은 중간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노인의 시설적응에는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시설관련변수의 영향력보다는 가족관계변수의 영향력이 더 컸다. 그 중에서 가족과의 친밀감 변화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따라서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기 전부터 입소 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가족과의 친밀감이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주제어 : 장기요양기관, 시설적응, 가족관계, 집단행동부적응, 새로운 거주지 인정, 친구만들기, 이동쇼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amily relations on facility adaptation of the elderly. In January and February of 2018,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5 ~ 6 elderly residents of each long-term care facility, and finally 353 data were used for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daptation level of the elderly was high. As for 'maladjustment of group behavior' and 'movement shock', the level of maladjustment is low as 2 points, and adaptation dimension such as 'accept of new residence' and 'making friend' is above the middle level. Second, the influence of family variables was more influential tha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the influence of the facility-related variables. Among them, the closeness with family is the most influential.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elderly need active support and efforts to maintain the intimacy with the family from the entrance to the facility and the time after the entrance.

**Key Words** : Long-term care facility, Facility adaptation, Closeness with family, Maladjustment of group behavior, Accept of new residence, Making friend, Movement shock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A2A01026950)

\*Corresponding Author : Sang-Jin Lee(welfare-i@hanmail.net)

Received February 23, 2018

Revised March 26, 2018

Accepted April 20, 2018

Published April 28,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8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10년이 되었다. 장기요양기관은 크게 재가기관과 시설기관으로 나뉘는데, 2016년 말 19,398개소 중에서 재가기관은 14,211개소(73.3%), 시설기관은 5,187개소(26.7%)로 재가기관의 수가 훨씬 많으며,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0.0%, 시설기관은 2.0% 각각 증가하여 재가기관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1]. 또한 장기요양인정자도 급증하는데, 장기요양인정자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34.9%p나 크게 증가하였다[1].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시설이 입소노인의 주거문제 및 의료적인 문제부터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문제까지를 해결해 주는 곳으로 입소노인의 전반적인 삶을 책임지기 때문에 해석된다.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는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관리, 급여제공과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에 대해서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권리 및 책임 영역은 2013년도에 비해 점수가 하락하였으나, 급여제공과정과 급여제공결과 영역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공표하였다[2]. 이처럼 입소노인에게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기관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삶은 어떠한가에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의 시설입소는 지금까지의 익숙한 거처를 떠나 새롭고 낯선 환경에 완전히 새롭게 적응해야 함을 의미[3]하는 상당히 중요한 생애사건이다. 즉,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기관 이용 노인과는 달리 시설입소노인의 경우는 이전에 살던 곳으로부터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패턴, 사회적 지지망까지의 변화를 겪게 된다[4,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노년기에 전체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설기관에 입소한 노인의 시설적응에 대한 관심을 갖었다. 특히 노인의 시설입소는 익숙한 일상생활에서의 단절감, 사회적 관계와의 분리와 이에 따른 위축, 신체 기능의 저하, 무망감이나 우울, 자살 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6]. 따라서 시설입소 노인의 시설적응

에 관심을 갖고 어떤 변수와 시설적응이 관련되는가를 파악하여 시설입소노인의 시설적응 및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간의 노인의 시설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질적연구와 양적 연구로 크게 나뉜다. 질적연구[7-10]는 경험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미를 파악하여 시설적응이라는 그 현상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양적연구는 국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국내에서는 2010년경부터 다수 발표되었고 주로 시설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 있다. 이 연구들[8,11]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노인의 시설적응에는 성별, 연령, 학력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 신체적 건강, 입소기간 등 시설관련변수, 입소의 자발성, 가족과의 친밀감, 가족의 시설 방문횟수, 가족갈등과 같은 가족관계변수 등이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시설적응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시설관련변수와 같은 변화하기 어려운 변수보다는 노인이나 가족의 노력, 전문가의 지지로 노인의 시설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수인 가족관계변수에 관심을 두고,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나 시설관련변수는 통제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노인과 가족간의 친밀한 관계는 시설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인의 시설입소의 가장 큰 동기는 자녀의 지지 부족, 가족의 상실, 독거생활 등 가족과 관련된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12,13]. 같은 맥락에서 입소 노인의 자발성 역시 시설적응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입소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노인의 경우, 입소 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요양시설을 ‘집’처럼 인식하고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상황과 인생에 대해 생각하는 등 긍정적 생활 태도를 나타낸다[11,14,15]. 자발적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삶을 선택한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부정적 마음을 내색하지 않고 가족에 대한 이해와 희생의 마음으로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재미를 찾아 생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8]. 반면, 자발적이지 않은 시설입소는 자발적인 시설입소보다 큰 스트레스 사건[16] 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 크다[16,17]. 이처럼 입소동기나 시설입소의 자발성과 같이 입소전의 가족관계만이 아니라 입소후의 가족관계도 시설적응에 중요한 변수이다. 즉, 시설입소 후 가족, 다른 거주자, 시설 직원과의 지속적인 대인관계와 사회적 지지는 요양시설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11,18,19].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시설적응의 차이를 보면, 노인의 성별[20]에 따라 남자가 시설적응을 더 잘하며, 연령이 낮을수록[20], 학력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에 적응정도가 가장 높았다[14]. 경제적 수준도 시설적응과 관련되는데, 무료시설입소자가 유료 시설 입소자보다 적응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21].

시설관련변수에 따른 시설적응의 차이를 보면, 노인의 건강상태[11,18]에 따라 건강한 경우에 시설적응을 더 잘한다는 연구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혼용이 되어 있다. 입소기간과 관련해서는 연구의 결과가 다양하나 입소기간이 길수록 시설적응을 잘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즉 입소 초기에는 이동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불안, 혼동, 두려움 등을 겪지만[22,23], 대략 6개월 정도면 적응해 간다는 Brooke[24]의 연구, 3-12개월에 걸쳐서 적응해 간다는 연구[11,24]가 있으며, 1년 이상[25], 혹은 3년 이상[22]이 걸린다는 결과도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입소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와 시설관련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처럼 노인의 시설적응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관련 변수가 다양하다는 점이 밝혀졌으나, 선행연구자들은 관련변수 중 일부분에만 초점을 두거나, 시설입소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어렵다는 제한점으로 인해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노인의 시설적응은 시설환경과도 관련되는데 시설 평가등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도 있다. 이로 인해 선행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 1.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평가등급 A등급부터 E등급까지의 기관을 모두 포함시키고, 지역 역시 서울, 경기, 충청, 강원, 경상 등 전국적인 표집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노인의 가족관계가 시설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이다. 설문조사를 위해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등

급을 반영하여 A등급 기관 14.1%, B등급기관 20.4%, C등급 기관 22.9%, D등급 기관 19.2%, E등급 기관 23.2%를 할당하였고, 다시 등급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동읍단위, 중소도시 면단위로 할당하여 표집틀을 구성하였다. 2018년 1월과 2월에 한 기관 당 입소노인 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직접 면담에 의한 설문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기관의 사정상 방문을 원치 않는 경우는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를 표집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시설에 미리 전화로 허락을 받고 시설을 방문하여 직원으로부터 설문지에 응답을 할 수 있는 노인을 추천받았고, 추천 받은 노인 중 설문응답에 자발적으로 응한 경우에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79개기관에서 381명 노인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2.2 측정도구

시설적응은 이병식[26]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쉽게 다른 노인과 친해지기 어렵다, 이곳에서 잘 지내고 싶다, 한방의 사람들과 친하다, 전에 살던 집이 그리워 자주 서글프다’ 등의 26문항, 5점 리커트형 척도이다.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행동부적응, 새로운 거주지 인정, 친구만들기, 이동쇼크의 수준이 높다.

Table 1. Reliability and Mean of the sub-factor

Sub factor	Items number	Cronbach's α	M(S.D)
Maladjustment of group behavior	6	.90	2.44(.74)
Accept of new residence	6	.72	4.02(.58)
Making friend	5	.78	3.26(.66)
Movement shock	9	.91	2.21(.66)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72에서 .91까지이다. 하위요인의 평균을 보면 집단행동부적응과 이동쇼크와 같이 부적응차원은 2점대로 낮고, 새로운 거주지 인정과 친구만들기와 같은 적응차원은 각각 4.02점과 3.26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의 적응수준을 보이고 있다(Table 1 참고).

가족관계변수로는 입소의 자발성, 가족방문횟수, 노인과 가족과의 친밀감 변화, 가족갈등으로 인한 입소를 사

용하였다. 입소의 자발성은 ‘시설입소 결정은 누가 하였습니다습니까?’의 단일문항에 본인/배우자, 아들/며느리, 딸/사위 등에 응답하게 하였고, 가족방문횟수는 ‘지난 1년간 어르신을 방문하시는 가족, 친척은 몇 번이나 보러 오셨습니까?’의 단일문항에 횟수로 응답하게 하였다. 가족과의 친밀감 변화는 ‘어르신과 가족과의 친밀감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에 ‘많이 나빠졌다’에서부터 ‘매우 좋아졌다’까지 5점 리커트형 척도이다. 가족갈등은 ‘자녀와의 갈등으로 입소’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형 척도이다.

통제변인으로는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와, 입소기간, 요양등급, 건강문제로 인한 입소(5점 리커트형 척도) 등 시설입소관련 변수를 사용하였다.

### 2.3 분석방법

SPSS Win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위계적 회귀 분석을 적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의 특성 및 시설관련변수의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여자가 71.7%, 남자가 28.3%로 여자의 비율이 대략 2배수이다. 연령은 61세부터 98세까지로 평균 79.54세로 고령인편이다. 배우자 없는 경우가 79.8%이며, 학력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경우가 29.7%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5.2%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더불어 통제변수로 사용한 시설관련변수인 입소기간, 요양등급, 건강상의 문제로 입소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시설입소 기간은 평균 33.037개월로써 가장 긴 경우는 183개월(15년 3개월)이었다. 요양등급은 3등급이 47.0%로 가장 많고, 4등급이 36.2%였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1등급과 2등급의 노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마지막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시설에 입소는 5점 만점에 3.406점으로 중앙값 이상으로 건강악화가 시설입소의 중요 변수 중 하나였다(Table 2 참고).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ong-Term Care Facility variables (n=381)

		N	%	M(S.D)
Sex	Male	108	28.3	-
	Female	273	71.7	
Age	65-69yr	24	6.4	79.54 (11.359)
	70-79yr	120	32.0	
	over 80yr	231	61.6	
Marriage Status	with spouse	77	20.2	-
	without spouse	304	79.8	
Schooling	none	113	29.7	-
	schooling	268	70.3	
National Basic Livelihood	non-recipient	285	74.8	-
	recipient	96	25.2	
Duration of facility entrance				33.037 (23.167)
Medical grade	1 grade	3	.8	
	2 grade	39	10.2	
	3 grade	179	47.0	
	4 grade	138	36.2	
	5 grade	3	.8	
Entered as a health problem.				3.406 (1.193)

### 3.2 노인의 가족관계의 일반적 경향

입소의 자발성은 본인이 시설입소를 결정한 경우는 9.7%에 불과하고, 90.3%는 가족이나 외부전문가 등에 의해 입소가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 노인이 장기요양기관 입소시 결정권이 상당히 약했음을 볼 수 있다. 가족을 포함한 친척의 방문횟수는 년 평균 18.19회로써 월 1-2번 가량으로 드러났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4.7%였다. 노인과 가족 간의 친밀감 변화는 5점 만점에 3.567점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갈등으로 입소한 경우 5점만점에 2.591점이어서 가족갈등보다는 친밀감이 높았다(Table 3 참고).

Table 3 Family relationship (n=381)

		N/M	%/M(S.D)
Voluntariness of entrance	Choose myself	37	9.7
	Family/Expert	344	90.3
Family visits number		18.19	.83
Change of closeness with family		3.567	.64
Entered as conflict with family		2.591	.78

### 3.3 노인의 가족관계가 시설적응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시설적응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기 전 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가족간의 친밀도와 노인과 가족과의 친밀도간의 상관관계

Table 4. The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s on Facility Adaptation for Elderly Adults (N=381)

Variables		Maladjustment of group behavior				Accept of new residence				Making friend				Movement shock			
		Model I		Model II		Model I		Model II		Model I		Model II		Model I		Model II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β	t
Constant			4.63***		6.96***		11.418***		9.20***		9.84***		6.77***		4.39***		5.96***
Control Var.	Sex <sup>1)</sup>	-.02	-.27	-.01	-.25	.02	.34	.03	.48	-.08	-1.39	-.10	-1.78	-.08	-1.39	-.08	-1.46
	Age	.02	.29	.03	.48	-.03	-.51	-.04	-.73	-.11	-1.91*	-.12	-2.26*	.04	.66	.04	.79
	Marriage Status <sup>2)</sup>	-.09	-1.46	-.06	-1.03	-.00	-.02	-.05	-.82	.07	1.13	.04	.72	.04	.74	.04	1.18
	Schooling <sup>3)</sup>	.05	.87	.04	.68	-.09	-1.52	-.05	-.86	-.05	-.80	-.04	-.69	.05	.92	.03	.52
	National Basic Livelihood <sup>4)</sup>	.07	1.30	.07	1.22	.03	.56	-.01	-.13	-.16	-2.93**	-.18	-3.54***	.03	.59	.05	.97
	Duration of facility entrance	.01	.16	.03	.59	.14	2.60**	.12	2.42*	-.02	-.33	-.04	-.76	-.07	-1.29	-.05	-1.02
	Medical grade	.00	-.00	.01	.17	.00	.06	-.00	-.07	.04	.723	.03	.53	.00	.00	.01	.16
Entered as a health problem.	-.01	-.13	-.20	-2.51*	-.21	-3.90***	.03	.46	.10	1.85**	.26	3.55***	.29	5.41***	.10	1.29	
Family Var.	Voluntariness of entrance <sup>5)</sup>			-.09	-1.65			.09	1.87*			.03	.49			-.05	-.91
	Family visits number			.05	.93			.17	3.47**			.03	.55			-.06	-1.21
	Change of closeness with family			-.32	-6.40***			.26	5.37***			.40	8.36***			-.22	-4.41***
	Entered as conflict with family			.25	3.20***			-.31	-4.18***			-.19	-2.63**			.24	3.17**
F		.925		5.345***		3.140**		8.105***		2.525*		8.714***		4.534***		6.122***	
R2		.021		.158		.068		.221		.055		.234		.095		.176	
R2 change				.137				.153				.179				.082	

\*P<.05, \*\*P<.01, \*\*\*p<.001

1) Sex(1=,male), 2)Marriage status(1=with spouse), 3) Schooling(1=none), 4)National Basic Livelihood (1 = non-recipient),

5) Voluntariness of entrance(1=Choose myself)

가 .853으로 높아, 가족간의 친밀도는 삭제하였다. 4개의 모델의 Durbin-Watson값은 1.5에서 2.5사이로 변수간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었고, 모델은 모두 유의미했다. 모든 모델에서 가족과의 친밀감변화가 시설적응에 가장 강력한 영향변수였다(Table 4 참조).

먼저 '집단행동 부적응'에는 통제변수보다는 가족관계 변수의 설명력이 더 높았고, 12개의 변수는 집단행동부적응을 15.8%설명하였다. 모델II을 중심으로 개별변수의 설명력을 분석해보면, 건강문제로 입소하였을수록, 가족과의 친밀감이 좋게 변화하였을수록, 집단행동부적응이 낮았고, 가족갈등으로 입소하였을수록 집단행동부적응이 높았다.

'새로운 거주지 인정'에는 통제변수보다는 가족관계변수의 설명력이 더 높았고, 12개의 변수는 새로운 거주지 인정을 22.1%설명하였다. 모델II을 중심으로 개별변수의 설명력을 분석해보면, 입소기간이 길수록, 입소를 노인이 선택하였을 경우, 가족방문횟수가 높을수록, 가족과의 친밀감이 좋게 변화하였을수록, 가족갈등으로 입소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거주지 인정 수준이 높았다.

'친구 만들기'에도 통제변수보다는 가족관계변수의 설명력이 더 높았고, 12개의 변수는 친구만들기를 23.4%

설명하였다. 모델II을 중심으로 개별변수의 설명력을 분석해보면, 나이가 적을수록, 수급자인 경우, 건강문제로 입소하였을수록, 가족과의 친밀감이 좋게 변화하였을수록, 가족갈등으로 입소하지 않은 경우 친구만들기 수준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이동쇼크'에는 가족관계변수보다 통제변수의 설명력이 더 높았고, 12개의 변수는 이동쇼크를 17.6% 설명하였다. 모델II을 중심으로 개별변수의 설명력을 분석해보면, 가족과의 친밀감이 낮을수록, 가족갈등으로 입소한 경우 이동쇼크의 수준이 높았다.

####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노인의 가족관계가 시설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장기요양기관을 평가등급과 지역에 따른 할당표본을 통한 표집틀로 구성하여, 2018년 1월과 2월에 한 기관 당 입소노인 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79개기관의 입소노인 381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서 논의를 하던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시설적응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집단행동 부적응과 이동쇼크와 같이 부적응차원은 2점대로 낮고, 새로운 거주지 인정과 친구만들기와 같은 적응차원은 각각 4.02점과 3.26점으로 중간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다. 적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변화하며[9,24], 시설입소기간과 적응간의 관련성을 본 선행 연구를 보면 적게는 6개월[24], 길게는 3년 이상[22]이 걸린다고 했는데, 본 연구의 대상 노인들의 평균 입소기간은 33.037개월로써 시설적응을 위한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적응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노인의 시설적응에는 이동쇼크요인을 제외하고는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시설관련변수의 영향력보다 가족관계변수의 영향력이 더 컸다. 그 중에서 가족과의 친밀감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가족과의 친밀감과 더불어 가족갈등으로 입소한 경우도 4개의 하위요인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이동쇼크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였다. 따라서 노인의 시설적응에는 가족관계 중 가족과의 친밀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갈등, 가족과의 친밀감, 다른 거주자, 시설 직원과의 지속적인 대인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시설적응에 중요함을 주장한 연구[11,18,19,27]와 같은 맥락이다.

노인인가가 급증하고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해지고 있으며, 노인부양에 가족, 정부와 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확산되고 있어 노인의 장기요양기관 입소는 점점 증가할 것이다. 시설적응이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삶을 수용하고 다른 거주자들과의 활동 및 관계 형성을 통해 거부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28]이라고 볼 때, 노인이 시설생활에 적응하여 마지막 거주지로써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기 전부터 입소 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가족과의 친밀감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노인이 시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이 시설입소 전에 가족 및 전문가와의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스스로 시설입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입소 초기에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은 입소 전에 자신들이 가족과 사회를 위해 행했던 노력과 헌신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심리적 위축[29] 때문으로, 시설입소가 자발적이 아닌 외부의 요인에 의

해서 결정된다면 시설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 노인이 시설입소결정을 스스로 한 경우에는 시설적응이 잘 이루어지며[11,14,15], 본 연구에서도 스스로 시설입소를 결정한 경우 '새로운 거주지 인정' 수준이 높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노인이 시설입소결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의 배려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둘째, 다음으로 시설입소 후에도 가족과의 친밀감이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시설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친인척이 정기적으로 시설에 방문하도록 시설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고, 가족이 방문하는 경우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월 1-2회 정도 놀이치료프로그램이나 상담프로그램에 가족을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가족부양자는 부모를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죄스럽고 잘못되었다는 부정적인 감정과 부양부담에서 벗어남에서 오는 홀가분한 감정 등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12], 놀이치료나 상담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가족부양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노인과의 친밀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가족이 시설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상통화를 통해서 얼굴을 맞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 가족이 입소노인과 외출이나 나들이를 하는 경우, 시설과 근무대, 혹은 시설과 학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줌으로써, 몸이 아픈 노인과 나들이를 하는 가족의 여러 가지 물리적 부담도 덜어주고, 가족과 노인간의 친밀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이 가족과 나들이를 하는 경우 교통약자이동서비스차량을 바우처로 지원해주거나, 전문적인 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동행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 또한, 외상노인을 위해서는 사설구급차이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정교한 할당표집틀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설입소노인의 적응을 가족관계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가족과의 친밀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으나 가족외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가족관계만이 아니라 친구 및 이

웃, 친인척 등으로 대인관계를 확장시키고, 시설의 환경적인 요소나 기관의 평가 등을 고려한다면 노인의 시설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다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NHIS. (2017). *Statistical Yearbook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of 2016*, NHIS
- [2] NHIS. (2016). *Long-term care (facility salary) evaluation result of 2015*, NHIS.
- [3] D. Heliker & A. Scholler-Jaquish. (2006). Transition of new residents to long-term care: basing practice on residents' perspective.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32*(9), 34-42.
- [4] G. J. Park. J. H. Lee. K. E. Bae. Y. H. Kang & H. S. Song. (2007).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Elders in Welfar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9*, 51-59.
- [5] R. A. Johnson. (1996). The meaning of relocation among elderly religious sister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18*(2), 172-185.  
DOI : 10.1177/019394599601800205
- [6] C. Walker. L. C. Curry & M. O. Hogstel. (2007). Relocation stress syndrome in older adults transitioning from home to a long-term care facility: Myth or reality?.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45*(1), 38-45.
- [7] G. C. Shin. (2010).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xperience of the female Elderly using a Long-Term Care: Centering on Users of Home-Visit Bath.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0*(4), 1345-1357.
- [8] Y. S. Shin. S. J. Kim & J. W. Kim. (2013). Grounded Theory Approach on the Adaptation Process in Facility of Long-Term Care Elderl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5*(3), 155-182.  
DOI : 10.20970/kasw.2013.65.3.007
- [9] G. E. Lee.(2002). A Grounded Theory Approach to the Adjustment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 The Control of Relucta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5), 624-632.  
DOI :http://dx.doi.org/10.4040/jkan.2002.32.5.624
- [10] J. Y. Jeong. (2006).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Adaptation Experience on Nursing Home Admission of Senior Patient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Master's Dissertation, Korea.
- [11] A. K. Chang & Y. H. Park. (2010). Sense of Control,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Adjustment of Nursing Home Resi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2*(5), 519-528.
- [12] Y. J. Jung & J. H. Seomun. (2011). A Qualitative Study on Caregivers' Burden Experiences for the Long-term Care Qualified Elderly, *Journal of Social Science, 22*(4), 3-30. DOI : 10.16881/jss.2011.10.22.4.3
- [13] H. J. Kwon. Y. U. Cho & J. Y. Ko. (2011). The Effec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 The DD Method Combined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3*(4), 301-326. DOI : 10.20970/kasw.2011.63.4.013
- [14] Y. K. Kang. (2010). *The effect of activity of daily living, social support, and length of stay on adaptation to nursing homes*, Yonsei University Master's Dissertation, Korea.
- [15] G. L. Brandburg. L. Symes. B. Mastel Smith. G. Hersch & T. Walsh. (2013). Resident strategies for making a life in a nursing home: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9*(4), 862-874. DOI: 10.1111/j.1365-2648.2012.06075.x
- [16] B. Jackson. C. Swanson. L. E., Hicks. L. Prokop & J. Laughlin. (2000). Bridge of continuity from hospital to nursing home--Part I: A proactive approach to reduce relocation stress syndrome in the elderly. *Continuum (Society for Social Work Leadership in Health Care), 20*(1), 3-8.
- [17] K. H. Jung & H. S. Jo. (2012).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for Elder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1), 215-224. DOI: 10.5392/jkca.2012.12.11.215
- [18] H. S. Yu & W. Kim. (2012). A Comparative Study on the Adaptation of the Elderly Living in Residential Facilities and Nursing Homes, *The Kyonggi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4*, 182-218.
- [19] S. Hauge & H. Kristin. (2008). The nursing home as a home: a field study of residents' daily life in the common living room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7*(4), 460-467. DOI : 10.1111/j.1365-2702.2007.02031.x
- [20] K. T. Kim. (2010). *A Study on Process of Resident Adjustment in Nursing Home*, Hanseo University Master's Dissertation, Korea.
- [21] H. K. Lee. (2009). A Study of the Effects of the Elderly's Social Exclusion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46*, 315-336.

- [22] H. F. S., Kao, S. S., Travis, & G. J. Acton, (2004). Relocation to a long-term care facility: Working with patients and families before, during, and after.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42(3), 10-16. DOI : 10.3928/02793695-20040301-06
- [23] M. J. Mallick & T. W. Whipple. (2000). Validity of the nursing diagnosis of relocation stress syndrome, *Nursing Research*, 49(2), 97-100. DOI : 10.1097/00006199-200003000-00006
- [24] V. Brooke. (1989). Nursing home life: How elders adjust, *Geriatric Nursing*, 10(2), 66-68. DOI : 10.1016/S0197-4572(89)80054-0
- [25] H. K. Lee. H. Y. Lee & J. A. Lee. (2009). Predictors of Facility Adaptation in Nursing Home Resi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e*, 39(2), 177-185. DOI : 10.4040/jkan.2009.39.2.177
- [26] B. S. Lee. (2012).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nursing home resident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 [27] E. S. An & S. M. Song. (2017). The Effects of Welfare Services Experience by the Low-Income Seniors on the Satisfaction of Life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Family Conflicts and Depress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0), 9-18. [https://doi.org/ 10.14400/JDC.2017.15.10.9](https://doi.org/10.14400/JDC.2017.15.10.9)
- [28] G. L. Brandburg. (2009). *Making a life in a nursing home,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 [29] Iwasiw, C., Goldenberg, D., Bol, N. & MacMaster, E. (2003). Resident and family perspectives: The first year in a long-term care facility.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9(1), 45-54. DOI: <https://doi.org/10.3928/0098-9134-20030101-12>

김 윤 정(Kim, Yun Jeong) [정회원]



- 199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 관리학과(문학석사)
  - 200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 관리학과(문학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부양, 빈곤, 자살, 장기요양기관평가
- E-Mail : twoyun21@hanmail.net

이 상 진(Lee, Sang Jin) [정회원]



- 2012년 2월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문학석사)
  - 2017년 8월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문학박사)
  - 2004년 2월 ~ 현재 : 서산석림사회복지관
- 관심분야 : 빈곤, 지역사회복지, 장기요양기관평가
- E-Mail : welfare-i@hanmail.net